

농산물 안전성 제도적 기반 마련

김철수 도의원, '전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도내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농산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전년(1.08%)대비 0.32%p 증가한 1.40%(분석건수 7,111/부적합건수 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산물의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생산단계와 유통·판매 단계에서 안전성조사를 하

도록 하고,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등에게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해 농산물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유해물질 등을 사전에 차단,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전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22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전북 무주군(군수 황인홍), 장수군(군수 장영수),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덕유산 둘레길 조성·운영'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명품 숲길 '덕유산 둘레길 조성·운영' 협약 체결

무주·장수·함양·거창군, 덕유산권역 자연경관 보호·자원 발굴·복원 등 약속

영호남의 자연과 향토, 문화, 역사를 잇는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덕유산 권역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지역들이 함께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동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덕유산 둘레길 조성·운영"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와 장수, 함양, 거창군은 협약을 통해 ▲덕유산 둘레길의 조성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관리·운영, ▲덕유산권역의 자연경관 보호, ▲가치 있는 문화·역사 등 자원의 발굴·복원, ▲덕유산 둘레길 주변 마

를 공동체 발전을 위해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덕유산 권역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지역들이 함께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동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덕유산 둘레길 조성·운영"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와 장수, 함양, 거창군은 협약을 통해 ▲덕유산 둘레길의 조성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관리·운영, ▲덕유산권역의 자연경관 보호, ▲가치 있는 문화·역사 등 자원의 발굴·복원, ▲덕유산 둘레길 주변 마

도 4개 군(무주 80km, 장수 20km, 함양 10km, 거창 50km) 15개 면의 숲길을 연결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무주 40억 원, 장수 10억 원, 함양 5억 원, 거창 25억 원)해 보호시설, 지형복원, 식생복원, 노면정비, 부대시설 등 기존 및 신규 숲길 개설·정비, 둘레길 안내 시설 등을 설치하게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본계획 용역 및 시설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며 4개 군이 개별 사업으로 동시 발주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조성사업은 2022년 하반기 착수하게 된다. /무주=전문성 기자

전북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추진

11월 말까지 도내 2만5000ha 농지 소유·이용 실태 점검

전북도가 도내 2만5000ha(18만 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7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과 비교해 기간이 대폭 늘었으며, 각 시·군은 조사농지 확정 등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그간 투기적 요소로서 농지법 위반 행위로 논란이 된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소유농지 2만5000ha(18만 필지)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로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은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는 농막·성토 관련 실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농업경영 여부 등이 다.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추진

한다.

한편, 도는 올해 초부터 분 농지이용 실태 조사와 연계되는 농지원부 소유·이용 현황화 작업인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대상은 관내 80세 미만 소유 농지 및 2020년 잔여물량(관내 80세 이상 및 관외거주자 소유농지)이다.

총 72만3,441필지 중 55만247필지를 정비해 76% 정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원부 현황화 작업과 연계 추진을 통해 농지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일정 공고

8월 9~13일까지 403명 진행

전북도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부터 체력, 신체검사까지 통과한 403명의 합격자를 발표하고 최종단계인 면접시험 일정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화재진압(남) 199명, 화재진압(여) 15명, 소방관련학과(남) 29명, 소방관련학과(여) 10명, 구급(남) 60명, 구급(여) 27명, 구조(남) 49명, 화학(남) 2명, 차량정비(남) 1명, 기관사(남) 6명, 건축(남) 1명, 정보통신

(남·여공통) 4명이다.

면접시험은 오는 8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면접 등록장소는 도청 별관 공명장 3층이며, 분야별로 시험일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면접은 1단계 집단면접과 2단계 개별면접으로 진행된다.

집단면접에서는 10명 내외의 응시자를 1개조로 편성해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개별면접은 자기소개서, 인적성검사와

결과 등의 자료와 면접위원의 질문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등을 평가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 31일 오후 2시에 소방청, 전북도청, 전북소방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감염예방을 위해 수험생 개인별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면접시험은 소방공무원 채용의 최종단계인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귀여하기 좋은 전북도' 통계로 나타나

해양수산부·통계청 발표 2020년 분석 결과 전국 3위·귀어인 102명 집계

전북도가 귀어하기 좋은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귀어귀촌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도내 귀어 인구는 94가구 102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국 967명 대비 10.5%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남(319명), 충남(314명)에 이어 전국 3위다.

지난 2019년 대비 귀어인은 16명(18.0%), 귀어가구는 14가구(17.5%) 증가했으며, 순위는 전국 4위에서 3위로 올랐다. 귀어인 102명 중 시·군별로는 부안군이 59명(57.8%)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4명(3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그동안 예비 귀어·귀촌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 등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어촌유치 홍보 및 상담, 수요자 맞춤형 정착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용자)사업', 만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에게 어촌 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 어업인 영여정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우리도 귀어인이 해양수산부 주관 전국 4명을 선발하는 '2020년 우수 귀어·귀촌인 선발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기도 했다.

서재회 도 수산정책과장은 "전북도가 귀어하기 좋은 환경이 귀어인 통계에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책 등을 발굴·지원해 귀어·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소규모 자력 개간사업 공고

- 사업목적: 전 조성을 위한 개간공사 시행 (밭작물(두부, 참깨))
- 사업명: 소규모 자력 개간사업
 - 사업시행자: 김현진
- 위치: 고창군 해리면 방축리 산12번지의 1필지
- 사업시행면적: 8,265㎡
- 사업개요(예상감보율 포함): 예상감보율 0%
 - 준공후 토사수로(300x500x300), L=352.0m, 흙관(D600), L=8.0m, 집수정(1.0x1.0x1.0)1개소
- 총사업비 32,398천원
 - 국고: 0천원
 - 지방비: 0천원
 - 자부담: 32,398천원
- 사업기간: 2021년 6월 ~ 2022년 6월 30일
- 사업계획 열람장소: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 *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5일
 - * 의견(이의신청)제출 기한: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처: 고창군 건설도시과)

2021년 7월 23일 고창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